"재입법 과세기준, 불교 특수성 무시"

조계종, 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 비판

"수행정진 자체가 출가 목적"
수행지원, 종교활동비와 달라
시행 10일 앞둔 일방적 결정
통과 시 헌법소원 등 조치도

기획재정부가 12월 21일 비과세대상인 '종교활동비'에 대해 소득신고를 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함에 따라 종교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종교인과세를 찬성해온 불교계 특수성마저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설정)은 기재부의 재입법예고 발표에 즉각 입장문을 내고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오로지 수행정진만을 추구하는 스님들에게 지원되는 비용을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분류해 신고하라는 기재부 입법예고 내용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조계종이 기재부 발표에 이 같이 반발하는 이유는 당초 기재부와 불교계 특수성에 대해 합의한 내용과 전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스님의 경우 타종교의 성직자와는 달리 출가의 목적 자체가 수행정진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제공되는 비용은 소득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조계종은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아 출가 이전에 사후 기증각서까지 받고 있어 수행과 교육·법계·공동생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소득이 아닌 '수행지원비'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에 따르면 기재부 역시 이 같은 입장에 동의했지만 별도의 수행지원비 명목을 편성하기 어려워 종교활동비에 포함하자고 제안했고, 조계종은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종교계와 협의 없이 갑작스레 시행령을 재입법예고 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기재부의 수정안이 시행될 경우 수좌스님들의 안거해제비를 비롯해 목욕비, 병원진료비, 학인스님들에게 제공되는 교육비용까지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조계종은 "참선·기도·염불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구하는 스님들에게 사찰에서 지원하는 비용은 '소득'이나 '종교활동'도 아닌 그 자체가 승단을 유지하는 기본 목적임을 수차례 설명한 바 있다"며 "출가한 승려로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을 위한 비용까지도 개인에게 지급된다는 이유로 소득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조계종은 이어 "정부 조세정책에 적극 협력하고자 종단소속 사찰과 스님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시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시행령 개정발표로 인해 종단사찰과 스님들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며 "나아가 종교인 소득신고를 위해 준비해왔던 조계종의 모든 종도 역시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약 10여일 앞둔 시점에 구체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입법예고 내용은 조세정책 집행의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책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이번 입법예고 내용은 폐기돼야 한다. 종교계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종교인 과세 시행에 혼란을 자초한 문재인 정부에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출가 독신 수행자라는 종교적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정책의 편향성을 보여준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끝으로 해당 예고안이 아무 조치 없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할 시 현 정부 종교정책이 특정종교에 편향된 것으로 이해하고, 헌법소원 등 법적인 문제를 포함해 종단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한편 기재부의 시행령 재입법예고는 이낙연 총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완하라"는 언급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개인에게 지급되는 종교활동비를 추가하고, 종교활동비를 포함한 소득명세서를 연 1회 관할 세무서에 제출토록 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대중화합해 큰스님 가르침 계승"

한마음선원 주지 혜솔 스님 취임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신임주지에 혜솔 스님〈사진〉이 취임했다. 한마음선원(재단이사장 혜수)은 12월 17일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5층 법당에서 신임주지 혜솔 스님의 취임식을 거행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은 "어찌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시기였는데, 대행큰스님의 가르침으로 하나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부대중이 항상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주지 소임을 맡은 혜솔 스님을 비롯해 대중 스님들이 화합하여 잘 이끌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예전에 큰스님께 여쭈기를 '큰스님께서 안 계실 때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 합니까' 라고 하자, 자기 근본인 주인공 자리를 잡고 진실하게 살면 된다고 하셨다. 앞으로도 진실하게, 승속이 따로 없이 사부대중이 함께한다면 모두가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명장을 받은 신임 주지 혜솔 스님은 "큰스님께서 이 터전에 법의 깃발을 꽂으시고 수많은 세월 동안 어두운 마음에 불을 밝혀 주시고, 법의 감로수로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일러주셨다. 또한 큰스님의 뜻을 받들어 전(前) 주지이신 혜원 스님이 오랜 세월 도량을 외호하고 장엄하며 우리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셨다. 이 도량을, 그 속에 담긴 뜻을 다음 세대에게 잘 인계해야 할 책임이 주어지는 시절이 아닌가 싶다"며 소감을 피력했다.

혜솔 스님은 이어 "큰스님 가르침이 지속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혜수 이사장스님을 모시고 사제님들은 물론 국내 본, 지원 과 해외지원 모든 신도님들과 한마음으로, 미약한 힘이나마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스님들의 마음 넓은 성탄축하

올해도 어김없이 조계사 크리스마스트리에 불이 켜졌다. 예수님도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구제중생을 위해 이 땅에 왔듯이 불교계도 종교화합의 의미를 담아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12월 18일 점등식에서 "낮은 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먼저 챙기고 살피신 예수님의 삶을 되새겨야 한다. 낮은 마음으로 함께 일구는 겸손과 양보의 미덕은 서로의 신뢰를 더욱 굳게 한다"고 강조했다. **글=윤호섭 · 사진=박재완 기자**

정부 해결 못한 대사회문제, 불교가 맡는다

조계종 사노위 3기 출범
위원장 혜찬 스님 선출

제주4.3 · 베트남 학살 다뤄
비정규 노동자 정기법회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12월 20일 실천위원 13명을 위촉하고, 3기 출범을 알렸다. 위촉식 이후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실천위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3기 출범을 맞아 국가·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 범위를 넓힌다.

사회노동위는 12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3기 실천위원 13명을 위촉하고 해인사 기획국장 혜찬 스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3기 실천위원으로는 혜찬 스님을 비롯해 △사회부장 진각 스님 △동국대 박사과정 고금 스님 △원주 황산사 도철 스님 △함양 백운암 주지 혜문 스님 △대구 묘광사 법상 스님 △마곡사 교무과장 우담 스님 △안성 석남사 총무 용주 스님 △서울불교대 박사과정 준오 스님 △권승복 前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문진 前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나라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집행위원장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이 위촉됐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사회노동위는 3기를 맞아 제주4.3사태 등 대단위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은 것이 특징이다. 우선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이 계획돼 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광화문 4.3사태 70주년 추모 행사에 사회노동위도 참가해 위령재를 봉행할 예정이다. 사회노동위는 이와 관련, 최근 제주도 피해사찰 순례를 다녀오는 등 준비를 해왔다.

또한 '비정규 노동자 문제 해결 위한 기도법회'가 정기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그동안 사회노동위는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왔지만 정기적인 기도법회는 열리지 않았다. 베트남 전쟁 한국군 민간인 학살문제도 다룬다. 베트남 희생자에게 참회와 반성을 하는 위령재와 천도재를 음력 7월 백중에 봉행할 예정이다.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심리상담을 진행하던 '도반'은 활동 범위를 넓힌다. 노동자를 직접 찾아가 심리상담 해주던 방식에서 온라인 사업을 전개하며, 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전화 상담사업도 계획 중이다. 긴밀한 사업진행을 위해 사회노동위는 조직 정비에도 나선다. 종령을 개정해 실천위원의 범위를 넓히고 부위원장도 2명 이상 선출할 예정이다.

사회노동위 3기 위원장 혜찬 스님은 "앞으로 여러 위원 스님들께서 애써주시길 바란다. 화쟁하는 모습으로 사회노동위가 발전적으로 나아갔으면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이다. 노동 문제, 사회 문제를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불교문화체험관, 세종시민에 원만회향"

조계종, 체험관 건립 입장 발표

일부 개신교계 반발로 잠시 난항을 겪은 세종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과 관련, 조계종 문화부가 "세종시민과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문화부장 정현 스님은 12월 19일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세종시민에게 원만히 회향하겠습니다'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불교 전래 이래 1700여 년 동안 이어온 전통적인 수행의 공간이자, 다양한 한국의 전통문화가 보존되고 창조돼 온 공간,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조화의 공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 속에서 국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와 복지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라며 "체험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적·법적 대응을 진행해 오해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12월 15일 제5차 본회의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지원 시비 20억 원을 포함한 내년도 세종시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윤호섭 기자**

2018년 대한불교조계종 신도기본교육 안내

■ **신도기본교육**
· 신도법 제14, 16조에 의거, 사찰 신도를 대상으로 불자로서의 소양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신행교육과정이며 불자로서의 올바른 신행생활을 열어가는 기본교육 과정입니다.

■ **신도기본교육 대상**
· 발심품계(신도등록)의 신도를 대상으로 함
※ 발심품계(신도등록)자가 아닌 경우, 기본교육과정을 통해 발심품계(신도등록)자가 되도록 지도합니다.
※ 불기 2562(2018)년 부터 신도등록 접수 · 제작 업무 및 교무금 납부는 중앙신도회에서 시행 합니다.

■ **교육 교재 및 시간**
·『불교입문』(조계종출판사 발간) · 사찰의 여건에 맞게 교육 (총 12시간 이상)

■ **강의 자료 제공**
· 포교원에서는 사찰 주지스님께서 강의하실 수 있도록「불교입문 강의계획 지침서」, '불교입문 강의 PPT자료' 제공해 드립니다.

■ **교육 진행 방법**
· '불교입문' 정규교과목 진행 (1주 1~2시간 등)
· 사찰 정기 법회 시간을 활용 (정기법회, 초하루 법회, 재일법회 등)
· 단기코스의 교육으로 진행 (1박 2일, 주말반 등)

■ **신도기본교육 기관**
· 조계종 등록 사찰 · 조계종디지털대학 · 지역사찰 연합으로 교육기관 개설 및 운영

■ **교육이수자 특전**
· 종단 인증의 품계 수여 – 행도품계 수여
· 사찰 신도회 및 신도단체 임원으로서의 기본 자격 획득
· 신도전문교육기관 입학 기본 자격 획득

■ **행정절차**

사 찰	교구본사	포 교 원
기본교육과정 개설	교구차원의 기본교육 시행계획 수립	
기본교육과정 운영		
교구본사 보고 →	사찰별 기본교육 시행 보고서 접수	
교육이수자 관리		
행도품계 품서	포교원 보고	교구별 보고서 접수 후 행도품계 휘장 지원

※ 직할 사찰은 포교원으로 바로 접수

■ 자세한 내용은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or.kr)
· 포교 – 신도교육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포교원 교화팀 02)2011-1904**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지 홍